

여행도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항공권 서비스 신성장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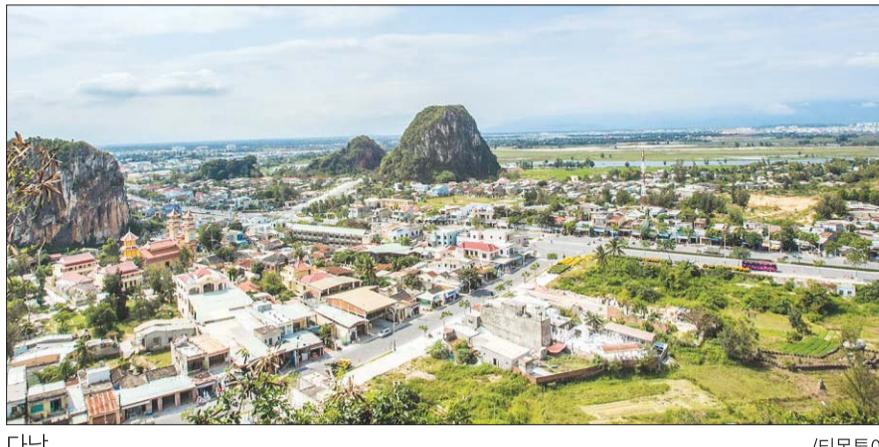
티몬 항공권 예약 400만건 돌파
G마켓 비행 스케줄 실시간 확인
위메프 전 세계 숙박 비교·예약
쿠팡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추천

이커머스 업계가 항공권·여행 카테고리를 집중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여행사가 아닌 G마켓,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티몬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국내 17개 여행사와 제휴해 항공권 운임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는 항공권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 4월(2주년)에는 해외항공권 예약 기록이 400만건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티몬에 따르면, 여름 휴가 등으로 가장 여행을 많이 떠나는 올해 8월의 실제 발권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대비 약 13% 증가했으며, 재작년대비 무려 71%가 성장했다.

티몬 관계자는 “여행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항공권인 만큼



다낭 /티몬투어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여행 카테고리를 강화함으로써 추가적인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 G마켓은 2016년 여행 전문관 ‘여행을 다답다’를 오픈했다. 항공권 가격비교는 물론, 비행 스케줄, 잔여 좌석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G마켓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항공권 판매량은 살펴본 결과, 2016년 대비 국내 항공권은 21% 신장했으며, 해외항공권은 131% 신장세를 보였

다. 특히 해외항공권은 201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 28%, 2018년 87%, 올해 131%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올해 가장 판매량이 높은 여행지 항공권(에어텔 포함 상품)은 1위가 베트남 다낭, 나트랑인 것으로 조사됐다. 뒤 이어 괌, 마카오, 대만, 하이난이 이름을 올렸다.

아베이코리아는 자사의 스마일카드 사용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호텔/해외패키지/레저 등 다양한 여행상품을 스마일카드 단독 특가로 마련

하기도 했다. 제주신라호텔,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강남, 라마다 속초 호텔 등 국내 인기 호텔 라인업은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G마켓은 스마일카드 15% 할인, 옥션은 스마일 카드 최대 20%(최대 30만원) 할인이 적용된다.

위메프는 최저가 항공·숙박·패키지 검색 및 예약 서비스인 ‘원더투어’와 위메프의 여행·레저카테고리를 하나로 합친 ‘위메프투어’를 지난 7월 런칭했다.

이커머스 최초로 항공 검색 엔진 ‘스카이스캐너’와 제휴를 맺었으며, 이로

써 소비자들은 전세계 1200개 이상의 항공사, 여행사가 제공하는 항공권 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해외 숙박은 부킹닷컴·아고다·익스피디아·트립닷컴 등 전 세계 유명 숙박 가격 비교·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여행 MD가 큐레이션한 여행 패키지부터 해외 교통패스, 입장권, 현지투어 등 액티비티 상품도 판매한다.

쿠팡 역시 여행 카테고리를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여행 카테고리를 개편해 전국 숙박 상품을 빠르고 쉽

게 예약·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니즈에 맞게 선호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도입했다.

이커머스가 여행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자유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여행 시장을 신성장동력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또한 이커머스의 주 고객인 밀레니얼 세대가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 서도 핵심 고객층이기 때문이다. 여행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들어온 소비자에게 다른 일반 카테고리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해외 여행객 수는 2015년 1931만 명, 2016년 2238만 명, 2017년 2649만 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3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 분야가 13.5%로 1위를 차지, 1조 4282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총 거래액도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온라인 거래액 상품군 1위를 차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뛰면서 스마트폰 촬영할 땐 ‘짐벌’ 필수

구기자의 뜯구쓰구

DJI 오즈모 모바일3

전작에 비해 가격 낮고 성능 올라
달리면서 촬영해도 흔들림 적어
얼굴인식으로 혼자서도 촬영 가능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이 늘면서 부드럽고 안정적인 촬영을 돋는 ‘짐벌’ 제품을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DJI의 ‘오즈모 모바일3’를 사용해봤다. DJI가 출시한 스마트폰 짐벌 3번째 제품으로, 전작에 비해 성능은 좋아지면서 가격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이다.

◆안정감은 기본, 편리한 버튼 탑재

짐벌은 맨손으로 들고 찍었을 때보다 확실히 동영상의 안정감을 높여준다. 달리면서 촬영한 경우에도 손으로 찍은 영상은 흔들림이 심한 반면 짐벌을 사용한 영상이 흔들림이 적었다.

오즈모 모바일3는 짐벌 내 버튼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여러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짐벌을 손에 쥐었을 때 전면에 조이스틱, 셔터·녹화버튼, M(모드)버튼이 위치하고, 뒷면에 트리거, 옆면에 줌 슬라이더가 있다.

M버튼을 한 번 누르면 사진에서 동영상 모드로 바뀌고, 두 번 누르면 스마트폰이 세로에서 가로로 전환된다. 전작에서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빼서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줌슬라이더를 통해서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다. 속도가 빠르지는



DJI 오즈모 모바일3을 펴울 때(왼쪽)와 접었을 때의 모습. /구서윤 기자



DJI 오즈모 모바일3로 촬영하는 모습.

않았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할 때보다 편리했다.

또한 오즈모 모바일3는 접이식 디자인을 갖춰 짐벌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부피를 줄일 수 있다.

◆손쉽게 만족스러운 영상 결과물 획득

오즈모 모바일3에서 인상적이었던 기능은 액티브 트래킹 모드다. 영상을 촬영할 때 손이나 얼굴, 물체 등을 드래그해 설정해두면 그 대상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촬영한다.

특히 얼굴인식을 잘하는 모습이었다. 삼각대로 고정을 해둔 뒤 움직일 때마다 사람의 움직임에 맞춰 스마트폰도 움직여 촬영해주는 사람 없이도 간단한 영상을 찍는 게 가능했다. 혼자 촬영이 잦은 1인 크리에이터나 아이를 촬영하

는 부모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토리 모드를 통해서는 여러 효과가 적용된 영상을 쉽게 촬영할 수 있다. 13개의 스토리에 따라 배경음악, 영상 효과, 필터 등이 모두 다르다. 짧은 시간 촬영으로 멋진 영상을 얻을 수 있어 결과물도 만족스러웠다. 다만 카메라가 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갑자기 움직여서 원하는 장면을 담기에는 어려웠다.

◆영상 촬영 잦은 사람에게 유용

짐벌 사용 초기에는 원하는 대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제품이 마음대로 회전해서 원하는 물체를 촬영하기 어려웠다. 여러분 사용에도 어려워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또한 405g의 무게로 가벼운 편이지만 오래 들고 있으니 손목에 부담이 느껴졌다. 특히 삼각대까지 장착하면 더욱 무거워졌다.

사진을 찍을 때는 짐벌에서 스마트폰을 빼서 손으로 들고 찍는 게 더 편해서 영상 촬영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굳이 영상 촬영이 잦은 사람에게는 유용한 제품이 분명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U+, 공모전 통해 디자인개발자 채용

입상자에 상금·채용 연계 인턴십 기회

LG유플러스는 ‘2019 핀업 콘셉트 디자인 어워드’ 공모전을 통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디자인 등 사용자 경험(UX) 분야 우수 인재를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2019 핀업 콘셉트 디자인 어워드는 사단법인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최하고 LG유플러스 등이 공동 개최하는 디자인 공모전이다. 공동 개최 기업들이 각각의 지원분야를 모집해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더불어 해당 기업의 채용 연계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IPTV 서비스 중 선택해 사용 중 불편했던 점을 제시, UX 설계 및 리디자인을 제안하

/김나인 기자 silkni@

고용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뿐리 뽑는다

2800여개 사업장에 근로감독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 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28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16일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 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다.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숙박업(18.7%), 제조업(11.4%), 사업서비스업(5.8%), 병원업(2.8%) 등에서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 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벌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son89@